

■ 줌인 동남아시아 ■
Zoom-in Southeast Asia



미얀마 수도 네째도와 전통의 발견 : 신정부의 신성한 심장

Nay Pyi Taw, the Myanmar's New Capital and Invention of
Tradition: A Sacred Heart of the New Civilian Government

장준영*

Jun Yeong JANG

미얀마는 2005년 11월 6일 아침 6시 37분, 사전 예고 없이 중부 지방에 위치한 뻔머나(Pyinmana)를 수도로 정하고 주요 관청의 이전을 시작했다. 2006년 3월 27일, 국군의 날을 기해 뻔머나는 네째도(Naypyitaw)로 도시명을 바꾸고 미얀마의 새로운 수도로 공포되었다.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의 선조치 또는 민중봉기와 같은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으로부터의 도피와 같은 현실적 배경에서부터 점성술과 같이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점괘의 결과를 따랐다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배경까지 수도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설이 난무했다. 다양한 추측과 억측까지 회자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접근상의 문제로 인해 네째도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네째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된 지 5년이 지났으나 이방인으로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며, 네째도 내에서도 조심스

*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 koyeyint@hotmail.com

럽게 행동해야할 각종 주의사항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느 도시에 서나 마찬가지로 “환영합니다”라는 입간판이 여행객을 반기지만 다른 도시와 달리 초병들의 매우 엄격한 검문이 기다린다. 외교관이나 사업가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자들은 모두 접촉기관에 신분이 통보되기 때문에 네째도 출입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이 여행을 목적으로 네째도를 방문할 경우 여권 검사, 방문 목적 등 강도 높은 신상조사를 요구하기 십상이다. 도시가 개발되고 많지 않은 일거리지만 고용 기회가 생겨남에 따라 이주민들이 발생하고 있어 외부인들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새로운 치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쑤산(Kyaw Hsan) 정보부 장관은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국토의 중앙으로 수도를 이전했다고 그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해외 언론은 밀림지대로 묘사했지만 실제 네째도는 사방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황량한 분지로서, 개발 자체가 가능한지 의문스러운 곳이었다. 외교관이나 사업가들은 수도 이전으로 인해 그들의 업무처리에 불필요한 추가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겠지만, 그러나 네째도는 단순히 수도가 아니라 군부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현실화된 과거이자 황당한 묘책으로 국가대사(大事)를 결정했던 군부의 행적을 반추시키는 곳이다. 구획이 정비된 도시계획에 따라 황무지를 개간하고 전통미에 바탕을 둔 근대식 건물과 함께 도시의 미관까지 신경 쓴 각종 조형물을 건설하는 현장에서



<그림 1> 라운드어바웃.
출처: 필자사진.

도시의 기능적 측면을 상상해보았지만 아무래도 네뵤도는 국가의 미래보다 군부와 정치엘리트들만의 성역(聖域)을 구축하는 현장이었다.

빨리어: 성역의 공간으로 포장하기

2008년 국민투표로 통과된 헌법에 따라 미얀마의 수도는 네뵤도이고, 네뵤도는 다시 하위에 8개 구(區, Pyinmana, Lewe, Tatkon, Zeyarthiri, Pobbathiri, Ottarathiri, Zabuthiri, Dekkhinathiri)를 포함하는 연방특별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앞의 세 지역을 제외한 후자 다섯 지역은 신설된 구획으로서 공통적으로 ‘영광’을 의미하는 빨리(Pali)어 ‘띠리’(thiri)를 어미로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성공’, ‘평화’, ‘번영’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지명은 해당지역의 구성원 의견이나 특정 내력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는데, 미얀마와 같은 나라에서 협의나 합의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은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인위적으로 구역이 분할되었기 때문에 지명에 관한 특정한 유래를 찾기도 힘들 것이다.

대신 부여된 지명은 왕조시대의 전례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버강(Bagan)은 ‘적들의 침입이 없다’는 의미로 아리마다나(Arrimaddana), 만달레(Mandalay)는 ‘신성한 영토’라는 의미 또는 ‘윤



<그림 2> 입간판:
네뵤도-제야띠리묘
(영광의 도시).
출처: 필자사진.

회'를 의미하는 만달라에서 유래되었고, 만달레를 왕도를 정한 밍동왕(Mindon)의 치세기는 '삼보(三寶)의 합'이라는 의미인 야더나뵙(yadanarpon)으로 정의된다. 몽(Mon)족의 본거지인 버고(Bago)를 평정한 버인나웅(Bayintnaung)왕은 왕도를 깐보자따디(kambawzathardi)로 명명하기도 했다. 위 도시들은 왕조가 발하고 흥한 주요 고도(古都)로서 불교 또는 빨리어에서 기원했다. 왕도(王都)를 의미하는 네뻬도라는 지명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네뻬도의 작은 골목길까지 빨리어의 효력은 유효하다. 2006년 11월 12일, 우빠다땅띠(Uppattasanti)불탑의 기공식 초대장에 명시된 기공식 장소는 '왕이 거주하는 왕도'라는 의미인 라자타니네뻬도였고, 거리 중의 하나는 '왕의 친구'이다.

도시의 지명까지 신성한 기운을 불어넣음으로써 왕조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군부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신 작은 시골마을을 가더라도 미얀마인들의 영웅인 국부(國父) 아웅산(Aung San) 장군을 회상할 수 있는 아웅산랑(路) 또는 보족랑(bogyoke-lan: 장군로)은 찾아볼 수 없다. 군부에게는 대중과의 소통보다, 현재의 그들을 있게 한 선구자보다 왕조시대의 영화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한편, 왕조시대의 수도 건설 배경을 알면 수수께끼와 같은 수도이전의 배경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왕조시대 수도는 새로운 왕국 건설과 함께 이뤄지기도 했지만 왕조의 중흥과 같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천도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경우 점성술사나 승려들의 점괘에 따라 만들어진 시구(詩句)형태의 예언인 '뜨바웅'(tabaung)에 따라 수도의 입지가 결정된다. 또한 "도시(국가)를 세우면 반드시 궁전이 필요하다"는 미얀마 속담에도 나타나듯이 왕조 창건과 수도 건설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2005년 10월, 군부는 재정상의 이유로 수도 이전을 2008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으므로 수도 이전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다. 즉 군부는 신정부 구성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했고, 이제 그들의 새로운 왕조로서 신정부를 위한 그들만의 왕도(王都)가 필요했으며, 그 입지에 대한 결정은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보다 전통적인 의례행위인 뜨바웅이었다. 결국 정보부장관의 언급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우빠다땅띠불탑: 쉐다공불탑 대체하기

미얀마 군주들은 특정 지역을 정복하면 불탑을 쌓고 불교를 전파했다. 이는 왕조의 영역을 표시하는 경계의 의미도 있지만 이교도마저 불교로 포용하려는 불자왕(佛子王)의 의무이자 자비의 표상이었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군주는 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근대에도 불자왕을 지향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행위가 이어졌으니 우 누(U Nu) 전총리는 제6차 불교도결집(結集)을 계기로 세계평화(Kaba Aye)불탑을, 네 윈(Ne Win)은 쉐다공불탑 맞은편에 대승리(Maha Wizaya)불탑을 건축했다. 2004년 권좌에서 밀려난 킨 농(Khin Nyunt) 전총리는 1999년 쉐다공불탑 보수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거금의 보수 자금을 쾌척했다. 땅쉐(Than Shwe) 전 군사정권 수장도 버강에 두 기의 불탑을 조성하여 그의 개인적 불심(佛心)을 표현했다.

네빠도의 상징인 우빠다땅띠불탑은 왕조시대의 왕도를 네빠도로 현실화하는 화룡점정(畫龍點睛)이요, 땅쉐왕국의 불교에 대한 애착심의 상징이요, 나아가 지금까지 불교를 수호한 쉐다공불탑의 영험한 기운을 대체하는 대안적 성지(聖地)인 셈이다.

양공의 모든 건물이 쉐다공불탑보다 낮게 건축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빠다땅띠불탑도 쉐다공불탑보다 1피트(=30.48cm) 낮은 325피트로 조성되었으나 탑신 모양은 쉐다공불탑을 그대로 따랐다. 군 인사들은



<그림 3>
우빠다땅띠불탑.
출처: 필자사진.

더 이상 쉐다공불탑에서 종교의례를 하지 않으며, 각종 영상물에서도 우빠다땅띠불탑 관련 사진이 쉐다공불탑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외관만 볼 때 쉐다공불탑과 거의 흡사하지만 불탑의 인위적인 흔적은 역력하다. 첫째, 이 불탑은 가까이에서 보면 상륜부(흥에뵤부 hneyawbu부터 쉐잉부 seinhpu) 이상만 금속으로 축조하여 그 위에 금박을 입혔고, 탑신부와 기단부는 모두 플라스틱이다. 탑신부가 플라스틱으로 축조된 불탑은 쉽사리 볼 수 있지만 군부가 그들의 상징으로 야심차게 건축한 불탑에 플라스틱을 썼다는 사례는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다. 불탑기금이 모자랐을 리는 만무했을 것이다. 불탑의 내부 구조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상륜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거나 탑신부와 상륜부의 연결구조가 매끄럽지 못할 경우 불탑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징후, 징조를 중시하는 군부는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통상 불탑을 조성할 때 자연적인 입지가 중요한데 쉐다공불탑의 경우 약 51m의 떼잉굿트라(Theinguutra)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싸웅당(saundan)이라는 계단이 참배객을 불탑으로 인도하는데, 수호자 역할을 하는 사자상인 친떼(chinthe)가 싸웅당의 입구에 있어야 한다. 영험한 장소에 모셔진 불탑을 펴야더고(Hpayadago)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불탑조성의 입지는 불탑의 종교성과 신비적 힘을 상징한다. 따라서 평지에 불탑이 조성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그럴 경우에는 굳이 싸웅당이 필요치 않다. 우빠다땅띠불탑은 벽돌을 쌓아 인공적으로 조성한 완만한 언덕에 위치하며, 지붕이 없는 20여 계단의 싸웅당은 있으나 상징인 친떼는 없다. 입지를 보았을 때도 네빠도의 중심지라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였다.

셋째, 일반적으로 불탑은 개방형인 퍼토(pohtoe)와 비개방형인 제디(zedi)로 나뉜다. 전자는 사방으로 형상이 다른 부처상을 모시고, 참배객이 회랑을 돌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후자는 부처의 유품과 같은 성물(聖物)을 안치하고 불탑을 쌓은 형태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기단부를 폐쇄한다. 그런데 우빠다땅띠불탑은 제디이면서 그 기단부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둔 형태이다. 내부 벽면으로는 부처의 전생담인 자따까(Jataka)가 대리석에 조각되어 있고, 사방 천장으로는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가 금박으로 곱게 수놓은 판에 미얀마어판과 영문판으로 부착되어 있다.

우빠다땅띠라는 명칭은 16세기 미얀마가 유럽인과 접촉을 시작한 시기에 최초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는 “발전과 안정”을 의미한다. 미국의 군사행동을 염두에 두어 그 두려움과 가능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군부는 불탑의 명칭을 그렇게 부여했는지 모른다. 경내 북동쪽으로 ‘마하수다웅빠퍼야지’(maha-hsu-daung-pyi-hpaya-gyi), 즉 ‘대기원성취불상’이 자리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불상을 모시고 있는 유리관에 우빠다땅띠불탑의 탑신이 비춰진다. 개인의 공덕을 쌓는 기도인지 아니면 공동운명체로서 군부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기도인지 그 속내를 알 수 없지만, 부처상 속에 불탑이 비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된 건축계획이 아니었을까 한다.

쉐다공불탑이 미얀마의 불교문화를 변함없이 유지해왔듯이 이제 군부는 그들이 조성한 우빠다땅띠불탑이 미얀마 불교의 새로운 중심지 이면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는 수호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쉐다공불탑이 2,500년의 세월을 거치며 국가의 흥망성쇠와 국민의 생사고락을 함께 한 것과 달리 우빠다땅띠불탑은 선택된 소수의 권력엘리트들만을 위한 숭배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거금의 쾌척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경내의 계단 한 칸, 바닥의 시시한 돌, 참배자들의 목을 축이는 물통에 달린 바가지 하나에까지도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



<그림 4> 우빠다땅띠불탑
내부: 팔정도.
출처: 필자사진.



<그림 5>
마하수다웅빠퍼야지.
출처: 필자사진.

국민들의 힘으로 불탑이 조성되는 관습과 전통은 우빠다땅띠불탑에선 발견되지 않는다.

백상(白象): 정권의 정통성 부여하기

미얀마군부의 백상사랑은 유별나다. 군부는 2010년 4월, 권력서열 5위까지만 탑승할 수 있는 전용기 2대의 이름을 백상이라는 의미인 신퓨(hsinhpyu)로 명명했고, 신화폐에서 아웅산 장군을 제외시키더니 2009년 10월 1일 새롭게 발행한 5천 짜트(kyat) 화폐에 백상을 그려 넣기도 했다. 네원정권을 상징하는 힌따(hinthta: 브라만을 상징하는 오리)를 버린 군부는 그들의 치세기에 들어 전설이나 신화 속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백상이 발견되자 어느새 그들의 상징이었던 사자를 슬그머니 배제하고 백상에 대한 ‘짜사랑’을 공론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군사정권이라도 역사적 진리에 따라 네원정권과 달리 신군부정권의 집권은 정해진 운명이며, 백상이 그 운명의 징표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전통적으로 백상은 동남아 불교왕국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동물이자 왕권을 상징하는 물품 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영토에서 백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군부는 그들의 통치에 대한

정통성을 스스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어찌 보면 네뵤도가 왕조의 수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군부행동양식의 인위적 결정체라면 백상은 인공적인 구조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왕조의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태고의 축매인 셈이다.

전륜성왕(轉輪聖王)은 무력에 의하지 않고 정법(正法, dhamma)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존재인데, 32상(相)의 신체적 특징과 윤보(輪寶), 여의주보(如意珠寶), 여보(女寶), 장보(將寶), 주장신보(主藏臣寶), 마보(馬寶), 상보(象寶) 등 일곱 가지 보물(ratana)을 소유해야 하는 물리적 조건이 따른다. 이 중 백상에 해당하는 상보는 모든 힘과 생명의 원천이다. 이를 테면 백상은 비를 내려 만물을 소생시킨다고 믿어졌으며, 불교에 수용되며 위용과 덕을 상징하는 존재로 각인된다. 정반왕 본생경(淨飯王 本生經)에 의하면 마야 부인이 북쪽 하늘에서 백상이 날아와 자신의 오른쪽 자궁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 후 싯다르타를 잉태했다고 한다.

유전적으로 백상은 백피증이 있는 돌연변이이며, 몸의 색깔이 하얗다고 하더라도 모두 백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대신 완전히 흰색부터 푸른 초록빛을 띠는 색, 불그스레한 갈색, 녹색, 황금색, 구리색, 은색 등 일반적인 코끼리와 다른 색깔도 백상의 범주에 속한다. 백상의 유무에 대한 기준은 총 315개인데, 그 중 머리 부분 35개와 몸통 및 꼬리 부분 29개 기준을 합쳐 총 64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백상은 출생 확률이 약 1/1000 정도에 불과하여 희귀종임에는 틀림없지만 현대사회에 들어 그 어디에서도 백상이 출현했다는 소식은 접할 수 없으니 그 존재는 어쩌면 용이나 불사조처럼 신화나 미신 속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얀마 역사에서 백상의 존재는 심심찮게 발견되었다고 기록되며, 그 시초는 버강왕국을 건국한 직후부터였다. 1054년 미얀마 남부 떠통(Thaton)을 정벌한 후 아노여타왕(Anawratha)은 불교경전을 포함한 각종 전리품과 함께 뿔레봉(Palei Pyone: 미소 짓는 진주), 탄만스와(Than Myan Swar: 강하고 빠른)로 명명된 백상을 포함하여 총 32마리의 백상을 포획하여 버강으로 돌아왔다. 아노여타는 38마리, 4대 왕인 알라우깃뚜(Alaungsithu)는 35마리의 백상을 소유했다고 알려졌다.

역대 미얀마 왕 가운데에는 신뷰(마)싱(Hsinbyu(mya)shin)이라는 칭호를 가진 왕들이 많은데 즉 이들은 백상을 소유한 왕들이었다. 버마족 두 번째 통일왕조를 건국한 버inna웅은 아유타야(Ayutthaya)를 정벌하고 아유타야 국왕으로부터 4마리의 백상을 희사 받았다. 이 시기 미얀마로 내도했던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상인들은 전투용 코끼리와 백상이 궁전에서 직접 사육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버inna웅에게도 신뷰마싱이라는 칭호가 붙었고, 세 번째 통일왕조인 쁘바웅(Konbaung)을 건국한 알라우피아(Alaungpaya)도 버inna웅과 함께 신뷰마싱으로 칭해졌다. 신뷰싱으로 더 유명한 메듀(Myedu)는 1767년 아유타야를 멸망시켰고, 사당빠야웅쑈(Sadan Pyaung Kyaw)라는 백상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다. 미얀마 서부지역을 평정한 4대 보도피아(Bodawpaya)왕도 11마리의 백상을 소유했다고 전해진다.

19세기에 들어서도 백상은 왕의 전유물로 존재했다고 기록된다. 마지막 왕인 띠보(Thibaw)와 그의 선왕 밍둥 치세기 왕자 직위에 봉해진 백상은 궁전과 같은 우리에서 100명의 근위병과 30명의 시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시종장은 장관급이고, 백상은 매일 무용수와 가수들이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는 가운데 버다옥(badauk) 나무의 향을 넣은 물에서 목욕을 했다. 왕조 시대 최후의 백상은 제야와떠나뻗서야녀가야자(Zeya Watana Pyitsaya Naga Yaza)로서 띠보왕과 왕족들이 1886년 인도로 볼모로 잡혀간 후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1958년, 마퍄(Ma Hpyu)로 명명된 암컷 백상이 출생하여 양공소재 동물원에 옮겨졌지만 19년 후인 1977년 사망했다. 이후 백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신군부정권기인 2001년 여카잉주에서 백상이 발견된 이후 2002년 이어 2010년에도 각각 두 차례씩 총 5마리의 백상이 포획되었다. 여전히 불교 왕권사상을 중시여기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백상과 관련한 소식이 없는 것과 대조적으로 백상의 발견은 분명 세간의 관심거리임에는 틀림없다. 2010년 이전 포획된 백상들은 현재 양공 외곽 지역에 특별히 건축된 개방형 우리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2010년 발견된 두 마리의 백상은 모두 네빠도 우빠다땅띠불탐의 동쪽에 위치한 특별 우리에서 사육된다. 특히 후자의 두 백상은 왕자(공주) 직위에 버금가는 신티도야더나(hsinhpyudaw-yadarna)에 봉해졌다.

<2000년대 포획된 백상>

성명	Razagaha Thiri Pitkyaya Gaza Yaza 변영하는 코끼리왕	Theingi Marlar 황금꽃	Rati Marlar 코끼리꽃	Baddawady 선의 총만	Nandawady 지혜의 총만
포획시기	2001.10	2002.5	2002.11	2010.6.26	2010.9.23
성별	수컷	암컷	암컷	암컷	암컷
연령	16년 추정	32년 추정	12년 추정	38년 추정	18년
키	8피트2인치	7피9인	6피11인	7피4인	7피1인
몸둘레	12피트8인치	12피3인	9피10인	10피10인	10피3인
눈	진주색	진주색	진주색	진주색	진주색
발톱	앞-5개 뒤-4개	앞뒤-4개	앞-5개 뒤-4개	앞-5개 뒤-4개(흰색)	
몸체	우기철 흰핑크 색, 건기철 황갈 핑크색	젖으면 밝은 핑크색	밝은 핑크색	우유빛	밝은 핑크색
체모	회색	회색	회색	흰색	밝은 흰색
포획지	여카잉 Yathedaung	여카잉 Maungdaw	여카잉 Maungdaw	여카잉 Maungdaw	여카잉 Maungdaw
소재지	양공	양공	양공	네째도	네째도

※ 자료: *New Light of Myanmar*(2010/08/15; 2010/10/22)에서 정리.

이들 백상에게는 왕조시대와 동일하게 우리입실(gehapawethana-minglar), 보호장치(anatayawika-minglar), 음식공양(battabunjana-minglar), 태양과 달에 노출시키는 의식(yaweindudathana-minglar), 작명(namakayanya-minglar) 등 5대 의식을 모두 치러 그 신성함을 부여했다. 현재 네째도에서 사육되는 두 마리의 백상 중 다섯 번째 발견된 백상은 이상적인 백상의 외형과 가장 가깝다고 평가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발견되었기 때문에 백상이 총선의 성공적인 개최와 근대적이고 변영하는 발전국의 길조가 되고 있다고 국영신문을 빌어 군부는 주장해왔다.

그런데 필자가 목격한 코끼리 사육법은 일반 코끼리와 별반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물론 코끼리의 외관은 일반 코끼리와 다른 색깔을 띠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육사의 대접은 특별하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주고 우리 주변을 산책하며, 산책하는 동안에는 사육사가



<그림 6> 신포: 백상.
출처: 필자사진.

코끼리의 목에 올라타 일상적인 용어로 코끼리를 인도한다. 산책에서 돌아온 코끼리는 족쇄가 허락하는 범위까지 움직이며 일반인들이 주는 각종 사료나 먹을거리를 코로 받는 익살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왕조시대처럼 무용수들이 춤을 추는 가운데 한가로이 목욕을 하는 대신 사육사가 뿌리는 호수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힌다. 고위 군부가 올 경우 코끼리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사육사들의 백상에 대한 일상적인 태도에서처럼 현재 환경에서 백상이 왕권을 상징하는 권위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체주의적 성향을 띤 권위주의정권은 지도자의 정신이 반영된 과거지향적 이데올로기를 설정하고, 현실정치에서 각종 상징의 조작을 통해 그들의 정통성을 마련하고자 시도한다. 규율민주주의(disciplined democracy)로 명명된 미얀마 신정부의 이데올로기도 군부의 찬란했던 과거를 현재에 반복시키는 전통의 재발견이요 미래를 위한 창조이며 그 이념적 구심점은 전통의상으로 등원하는 국회의원과 내각 구성원이 집결하는 네뻬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웅산수찌의 카리스마와 개인적 정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에서 심은 자트로파(Jatropha)에서부터 액운을 막기 위해 정부관청을 전갈 모양으로 건축한 사례까지 네뻬도는 그야말로 미얀마를 연구하는 학자와 건축가, 심지어 미얀마인들에게도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림 7>
네빠도 노동자들의 모습.
출처: 필자사진.



순전히 도시의 미적 외관만을 위해 가동 중인 것 같은 살수기 (sprinkler)가 뿜어내는 물거품 뒤로 수건 한 장으로 땀을 적시며 공사현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정말이지 네빠도는 군부의 위용을 드러내고 미신에 의지하여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도시로써 국태민안(國泰民安)보다 탕천(撐天)한 군부의 욕망을 상징화한 도시이다.

군부는 소수종족의 분리무장투쟁을 소탕하고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1958년부터 18개월 간 과도정부를 구성한바 있다. 그들은 6만기의 모래불탑을 세우면 국가가 처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우 누 행정부의 무능력에 섬뜩함을 느꼈고, 1961년 불교의 국교화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한 세속적인 집단이었다. 권력에 천착한 오욕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과 결합했고, 그 과정에서 찾은 과거의 영화는 뒤틀린 현실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었다. 분명 미얀마군부는 근대적이고 세속적인 정치를 꿈꾼 투철한 소명의식의 근대적인 건국자였다.

전통의 발견과 창조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일련의 과정이자 퇴색되는 민족주의를 재구성하는 일종의 정치적 상징이지만 현실정치를 좌우하는 근대적 제도와 법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가 발견하는 전통과 그것을 새롭게 창출하여 정권에 신성함을 부여하는 일련의 행위는 더 이상 그들이 현실정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정치엘리트들의 성역(聖域)으로 개발된 네삐도. 서글픈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광장의 중심으로서 네삐도는 상상 가능한 미래인가?